

“요리를 통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졸업작품전 '한(韓)', 새 옷 입은 한식 메뉴 선보여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학과장 차경희)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제 17회 졸업작품전 '한'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작품전 '한(韓)'은 한국(韓國)의 사계절, 춘하추동(春夏秋冬)을 요리로 표현하고 변화하는 사계절의 모습처럼 날로 발전하는 졸업생의 모습을 담았다.

커팅식으로 시작한 이번 작품전은 100여 개의 한식 요리 작품과 30여 개의 시제품들이 소개됐다. 두부 티라미수와 썬을 이용한 삼색 석류탕, 두부 선입지수탕과 호박옹심이 등 새로운 조리법의 창의적인 음식들이 전시됐다.

특히 대상을 받은 김동현 학생(25)학생은 '골든아워'라는 작품으로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온 약재를 재료로 가지미 오미자 물회와 쌍화탕 수육, 경육과 타르트를 만들었다. 바쁜 일상과 업무로 건강에 신경쓰지 못 하는 현대인을 위해서 '사람을 구하는 급속같은 시간', 골든아워처럼 잠깐의 맛있는 식사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했다.

한식조리학과 김동현 학생은 “자신의 몸을 헌신하며 응급구조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국종 교수님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었다.”라며, “이국종 교수님의 예술로 사람을 치유하듯이 요리를 통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한식 요리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샐러드드레싱과 영유아식, 한식 디저트, 콩고기를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들도 소개됐다. 학생들은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제 17회 졸업작품전 '한'을 개최했다. 대상을 받은 김동현 학생(25)학생은 '골든아워'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시장조사, 아이디어 개발, 컨셉 개발, 제품개발,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김치구아상, 두부크림브레 등 소비자의 입맛과 시장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했다.

이번 전시된 상품들은 농축수산물 및 지역 특산물로 개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전주대 한식조리학과는 다양한 국내·외 인턴십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식조리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재외공관 요리사, 해외 호텔 주방장 등 약 100명의 졸업생이 미국, 중국, 일본 등 24개국에 진출해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농협, 올해의 농식품 발전대상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대한민국의농산물협회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명품농산물 페스티벌'에서 전북농협은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개척에 기여한 공로로 7일에 올해의 농식품 발전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판매플랫폼사업은 전북도·융복합산업센터·전북농협의 협력사업으로 제품 품평회, 박람회 참여, 판촉활동 등을 통해 융복합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개척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의 농식품발전 대상'을 수상하여 2016년부터 4년째 융복합산업 판매플랫폼사업을 맡아 발전시켰다. 또한, 전북 한우 광역브랜드인 '잠예우'는 지난 4월에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4개 매장에서 대한민국 우수 한우 브랜드 대전'에 참가하는 등 전북의 우수 축산물의 꾸준히 알려졌다. /김영태 기자



현충일 앞두고 유성엽 의원 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려

전북서부보훈지청은 현충일을 앞두고 최근 유성엽 국회의원, 이호근 영림면장과 함께 정읍시 영림면 거주 6.25참전유공자 맥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는 전북서부지역 3830여명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기증 시비 제막식 개최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장 오연호)은 최근 교내에서 기증자인 동양석예원 고명환 대표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훈시비 제막식을 가졌다. 이혜인 시인의 '봄 일기' 중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등 두 문장의 짧은 글귀는 무궁한 세월을 지나며 소년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명환 대표는 "전국 10여 곳 소년원을 찾아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위한 교훈적 글이 새겨진 시비 기증을 통해 청소년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 소중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라 잃은 서러움을 알지 못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올바른 국가관 확립이 필요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적 주제라며 학생들을 향한 기대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군산시 대학로에 'JB희망의 공부방 제84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군산시 대학로에 위치한 유레카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84호 오픈식을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이영태 군산지역금융센터장, 김영춘 미장동지점장, 김경진 사회공헌부장, 군산시청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 유레카지역아동센터 박연희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유레카지역아동센터는 주변 일대 아동들에게 방과 후 학습지도, 정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으나, 오래되어 낡은 책장 및 어두운 내부 공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내부를 밝게 개선하기 위해 도배와 블라인드를 지원하고 낡은 책장과 책상을 새로운 가구로 교체하여 아동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밝고 쾌적한 공부방을 조성했다.

특히, 전북은행 미장동지점(지점장 김영춘)에서는 향후 정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나눔을 실천하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희망멘토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김영태 기자

제12회 고창농협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제12회 고창농협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7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이문식 고창농협장기부장을 비롯한, 유기상 고창

군수, 조규철 군의회 의장, 유덕근 고창농협장과 전·현직 농협임원, 선수 등을 포함한 30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로 12회를 맞은 고창농협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고령화라는 사회현실 속에서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다. 이날은 고창군 읍면에서 남·여 28개 게이트볼팀이 참가해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강의.체험형 학부모 눈높이 코딩교육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영재교육원에서 관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4주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모 코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딩은 컴퓨터와 소통하는 과정으로, 기존의 산업에 IT를 접목한 4차 산업 시대가 열리면서 미래 사회를 이끄는 핵심 교육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됐으며, 지난해부터 중학생의 경우 정보과목을 통해 34시간 이상, 초등학생의 경우 실과과목을 통해 17시간 이상 코딩교육이 의무화됐다. /장은성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키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